

# 冲庵 金淨의 「海島錄」研究

金 相 助\*

차 례

1. 序論
2. 冲庵의 現實的 處地
3. 海島錄의 世界
  - 1) 荒涼하고 孤獨한 世界
  - 2) 未完의 達觀
4. 結論

## 1. 序 論

조선사회는 성종 때에 이르러 사림 출신들이 대거 관계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과전법 체제가 이미 붕괴되고, 과중한 공역과 이로 인한 농민층의 몰락 등이 왕조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한 현실에서 부패한 훈구세력들을 비판하면서 강력한 도학 정치를 펼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관계에 등장한 후 연산군의 폐정으로 가혹한 탄압을 받지만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중종반정 이후 趙光祖가 등장하면서 엄정한 道學的 至治主義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冲庵 金淨은 이때 조광조 등과 함께 신진 사림 출신을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하나다. 그는 중종 3년 관계에 진출한 뒤, 廢妃 愼氏의 復位疏를 올렸다가 보

---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은에 유배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복직되어 조광조 등과 함께 昭格署 철폐, 鄉約 실시, 賢良科 설치 등을 주장하다가 기묘사화로 제주에 유배되고, 끝내 해배되지 못한 채 사사되었다.

그의 문학에 대해서는 일찍이 尹根壽, 許筠 등이 주목하여 그의 시가 뛰어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특히 윤근수는 그의 시가 唐詩風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up>1)</sup> 이처럼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온 충암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나 별로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다만 그의 유배시와 『濟州風土錄』만은 비교적 일찍부터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충암의 유배문학에 대한 연구는 梁淳秘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즉 그는 『제주풍토록』과 유배한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충암의 문학에 대한 최초의 연구논문을 학계에 내놓은 것이다.<sup>2)</sup>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은 『濟州流配文學研究』에 종합되었다.<sup>3)</sup> 또한 이와 유사한 보고가 강성능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4)</sup> 金基東은 연구 범위를 좀 넓혀 폐비복위소를 올렸다가 보은에 유배당했을 때와 기묘사화로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의 유배문학을 아울러 검토한 바 있다.<sup>5)</sup>

金鍾振은 충암의 문학을 검토하면서 그의 유배문학만이 아니라 그의 문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배문학쪽에 기울어진 감을 면하지는 못한다 하겠다.<sup>6)</sup>

이상의 연구 성과들은 충암의 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귀중한 연구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자료의 심도있는 해석에는 미흡한 감이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충암의 문학 중에서 그의 「해도록」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배되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삶을 미친 충암이 어떠한 정신적 궤적

- 1) 尹根壽 「月汀漫筆」, 己卯諸賢 一時之論 以爲文則法漢 書則法晉 詩則學唐 人物則當以宋諸儒爲準 如金元冲金大柔奇子敬輩是已 冲庵德陽之詩工 其集俱在夫人 得見之 固是唐調.
- 2) 梁淳秘 「冲庵의 濟州風土錄小考」, 『語文論集』 22, 高麗大 國文學科, 1981.  
「冲庵의 流配漢詩考」, 『語文論集』 23, 高麗大 國文學科, 1982.
- 3) 양순필 「濟州流配文學研究」,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2.
- 4) 康性能 「冲庵 金淨의 海島錄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1988.
- 5) 金基東 「冲庵 金淨의 流配文學攷」, 慶熙大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3.
- 6) 金鍾振 「冲庵 金淨의 文學世界」, 成均館大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5.

을 그려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도록」은 『충암집』을 편찬할 때 이때 지은 37편 44수의 시를 별도로 수록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한 유배인의 삶과 의식의 흐름을 살피기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2. 冲庵의 現實的 處地

金淨은 字는 元冲, 호는 冲庵 또는 孤峰으로 1486년(성종 17년) 9월 충청도 보은 慶州金氏 집안에서 아버지 孝貞과 어머니 許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처음 과거에 나간 것은 14세 되던 1499년(연산군 12)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관계에 나간 것은 중종 이후다. 즉 충암은 1507년(중종 2)에 別試 甲科에 급제 成均館 典籍으로 벼슬을 시작한 후, 司諫院 正言, 弘文館 修撰 등을 거쳐 湖堂에서 독서를 하다가 兵曹佐郎을 역임하는 등 비교적 순탄하게 관료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그후 兵曹正郎 副校理 校理 등을 거쳐 1514년(중종 9) 淳昌郡守로 나갔다.

이듬해인 1515년(중종 10년) 7월 충암은 당시 潭陽郡守 朴詳과 함께 『請復廢妃愼氏疏』<sup>7)</sup>를 올린다. 이 상소는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총 2500자가 넘는 긴 상소문에서 그는 昌敬王后가 죽은 지금은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폐출된 신씨의 복위를 정식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sup>8)</sup> 이제 그 주요한 부분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신등이 삼가 보건대 옛 왕비 신씨가 패척을 당하여 쫓겨 밖에 있는지 이제 거의 12년입니다. 신 등은 당초의 사유를 자세히 알지 못하오니, 무슨 큰 연유가 있어서 무슨 큰 명분으로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릇 임금의 대통을 받들어 왕업을 이으면 먼저 부부의 도를 바르게 하여 천지

7) 「冲庵集」 권5 「請復故妃愼氏疏」. 본고의 텍스트는 民族文化推進會에서 간행한 韓國文集叢刊 제23권 본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하에서 출처를 밝힐 때는 권차는 생략하고 글의 제목과 책의 면수만을 밝히기로 한다.

8) 위의 글, 204면. 臣等胸抱愼鬱久矣 而前此不能申吐者 正以昌敬王后當壺 若復愼氏 難爲昌敬地耳 今則昌敬上賓 壺位復缺 正反之機會 又當求言之秋 此臣等所以汲汲觀陳之也.

와 나란히 하고, 안으로는 음교로 밖으로는 양덕으로 다스려서 묘사와 신지를 주재하는 것입니다. 대저 배필이란 그 중대함이 이와 같으니 만약에 부모에게 불순하였거나 종묘 사직에 득죄하지 않았다면 설사 자질구레한 허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의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신씨는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전 처음 결혼한 해부터 정복에 화합하여 좋은 배필을 이루시고 …… 전하께서 대통을 받드시게 되자 중곤에 오르시어 신민의 하례를 받으셨고 종사의 주부로써 옹하였으니, 전하에게는 유적의 존엄함이 세워졌고 조종의 신령들에게는 빈조를 받들 희망이 있었으며 백성들에게는 모후로서 명분이 분명해졌습니다. …… 지금 내정에 주장이 없으니 이런 때에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시어 신씨를 다시 곤전 자리에 세우신다면 하늘과 땅이 받아들일 것이요 조종의 신령이 마땅히 여길 것이며, 신민의 소망에 따르는 것입니다.<sup>9)</sup>

자못 장황한 감이 있으나 간단히 요약하자면 부부의 윤리는 강상의 기본으로 가벼이 해서는 안되며, 폐비 신씨는 등극 전부터 이미 부부였으며 별 과오가 없이 폐출되었으니 복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씨의 복위 문제는 창경왕후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신씨는 박원종 등 반정공신들에 의하여 폐출되었다. 그들은 반정 과정에서 신수근을 죽인 후 복수를 당할까 염려하여, 책봉식까지 마친 왕비를 역적의 딸이라 하여 폐위시켜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씨의 복위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반정공신들의 잘못에 대한 추궁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비의 복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의 과거 행위는 군부를 겁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낙착되고, 따라서 그들은 대죄를 면치 못할 형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씨의 복위 주장은 필연적으로 반정공신들과 정면대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9) 위의 글, 200면. 臣等伏見故妃愼氏 被斥在外 殆一紀于茲 臣等未詳厥初之由 不知有何大故 舉何大名 爲此非常駭愕之事乎 夫王者 承統纂緒 先正夫婦之道 以俾乎天地 內以治陰教 外以理陽德 齊主乎廟社神祇 夫配匹之際 其重大如此 苟非不順於親 獲罪於宗廟社稷 則雖有微咎 細忒 決無割絕之義 …… 愼氏 自殿下龍潛之初 載嘉愷貞卜 以成好逑 …… 及殿下入承大統 正位中壺 受臣民之賀 膺廟社之主 於殿下 禴翟誌尊已立 於朝宗神祇 蘋藻之奉有望 於國人 母后之分已明 …… 今內政缺主 宜因此時 廓然決斷 復正愼氏于坤后之位 則天地之心所享也 祖宗之靈所允也 臣民之望所副也.

(신씨의 폐출은) 자신의 안전함만을 도모하는 간교한 계략이 앞섰던 까닭에 방자하게 돌아봄도 기탄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 임금을 겁박하여 손바닥에 놀리듯 하면서 국모를 내쫓았으니 …… 그 심사를 추측하면 동탁과 조조같은 행동인들 무엇을 꺼리겠습니까.<sup>10)</sup>

충암은 박원종 등이 임금을 겁박하여 국모를 내쫓았다고 하면서 그들이 동탁이나 조조와 같은 행동 인들 못하겠느냐고 하면서 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세의 죄인으로 규정하기까지에 이른다.

저 박원종 등은 비록 왕실에 큰 공이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천명과 민심이 모두 천하에게 따랐으니 이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기가 장차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마침 천명과 인심의 기회를 타서 힘을 썼던 것인데, 그 공을 자부하여 방자하게 군부를 겁박하고 국모를 추방하여 천하 고금의 대의를 범하였으니 이는 만세의 죄인입니다.<sup>11)</sup>

여기에서 충암은 ‘이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기가 장차 누구에게로 가’겠느냐고 하면서 반정공신들의 반정 공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맹렬히 탄핵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다음의 말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비가 오려고 할 때는 용이 그 직책을 수행합니다만 날이 가물 때는 용은 비를 오게 하지 못합니다. 비를 오게 하는 것도 하늘이며 가물게 하는 것도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니 끝내 때에 맞추어 (비가 내리게 하는) 역할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에게도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sup>12)</sup>

비를 내리거나 가물이 들게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용은 단지 하늘이 비를 내리고자 할 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용의 역할을 전

10) 위의 글, 202면. 惟其謀身之狡計勝 故肆然無顧忌 …… 恣制君父 如弄諸股掌之間 放逐國母 …… 推其心 則雖至董曹 亦何所憚哉.

11) 위의 글, 204면. 彼元宗等 雖曰有大功於王室 當其時 天命人心 咸屬於殿下 雖非此輩 神器將誰歸乎 適乘天人之會 效其力 而負恃其功 肆然不忌 劫制君父 放逐國母 犯天下古今之大分 此萬世之罪人也.

12) 「贈申洪之行序」, 186면. 天將雨 雲龍效職 其早也 雲龍無所施其用 其雨者天也 早者天也 而彼雲龍不可無 終必有時 而奪其用 其亦有所待者也.

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며, 비를 개개 할 때도 때에 맞추어서 용에게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마치 앞의 인용문과 반대로 반정공신들의 역할을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이 논리를 앞의 인용문과 연관시켜 본다면 박원종 등의 공신은 용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자 할 때 비가 내리도록 하는 용과 같은 역할을 한 그들의 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기가 장차 누구에게로 가겠'느냐고 하면서 천명과 인심의 기회를 타서 힘을 썼던 것 뿐이라고 하여 그들의 공을 부정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되지도 않은 공을 자부하여 방자하게 군부를 겁박하고 국모를 추방하여 천하 고금의 대의를 범한 만세의 죄인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창경왕후의 승하로 제기된 신씨 복위 주장은 새로 벼슬길에 나선 사림파에게 있어서 그들의 至治主義的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에 쥔 공신들을 축출하려는 명분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창경왕후가 곤위에 있는 한 폐비가 아무리 부당하다 하더라도 신씨의 복위는 논의할 수가 없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창경왕후의 죽음은 이러한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씨복위소는 신씨를 폐출한 공신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이 상소는 공신들에 대한 사림 출신들의 최초의 공개적인 도전이었다. 상소가 올라오자 대사간 李符이 '창경왕후가 낳은 원자가 있는데 만약 신씨를 복위시켜 왕자를 낳는다면 원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이때는 가례한 선후를 따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신씨가 먼저이니,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수도 있다'<sup>13)</sup>는 논리를 펴면서 충암의 주장을 邪議로 몰아부쳤다. 대사헌 權敏수가 이에 맞장구를 쳐 양사가 합동으로 추국하자고 계청하는 등 충암은 일대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유순 정광필 등이 말은 틀렸더라도 죄를 주는 것은 言路를 막는 것이라는 절충적인 주장을 하여 8월에 충암이 보은의 함림역에 유배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13) 『국역대동야승』 권3. 九면. 章敬既薨元子 國本已定 若復入慎氏 有王子之慶 而論嘉禮先後 則慎氏居先 國本或撓矣.

이 유배는 오래 가지 않았다. 그해 11월 조광조가 권민수, 이행 등이 언로를 넓히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반대로 탄핵을 하여 임금을 간언을 듣지 않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sup>14)</sup>

그 결과 李長坤을 대사헌, 金安國을 대사간으로 임명하면서 전세는 역전되기에 이르고 충암도 이듬해 삼월 귀양에서 풀리게 되었다. 이것은 충암 개인의 유배와 해배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사림파들의 득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양이 풀린 충암은 가을에 금강산을 거쳐 강릉으로 유람을 하는 등 거의 1년간을 벼슬에 나가지 않고 유람과 제자 기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11월에 司藝 벼슬이 주어졌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듬해에도 副應敎 應敎 典翰 등의 관직이 주어졌으나 역시 나가지 않았다. 그가 다시 벼슬에 나간 것은 이듬해 7월 특명에 의하여 通政大夫 副提學에 임명되어서이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2세였다.

이 때부터 다음 해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충암에게 가장 득의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충암은 30대 초반의 나이로 도승지 대재학 형조판서와 같은 요직을 맡고 있으면서 이상적인 도학정치를 펴기 위하여 매진하였다. 이때의 그를 연보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이 때에 …… 선생과 정암은 …… 요순 같은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고 말하면서도 꼭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소학을 공부하여 밝혀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돈독하게 하고, 향약을 간행하여 백성들에게 윤리를 가르치고, 소격서를 혁파하여 제사의 법도를 바르게 하고, 현량과를 설치하여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하고, 남발된 공훈을 깎아서 공이 없이 공신이 된 사람을 막은 것이 그것이다.<sup>15)</sup>

14) 「중종실록」 10년 을해조. 臺諫者 能開言路 然後可謂能盡其職也 金淨等事 宰相雖或請罪 臺諫則當救鮮 以廣言路 而反自毀言路 先失其職 …… 臺諫強請罪之 陷君於不義 以成拒諫之漸.

15) 「충암연보」 상, 245면. 方是時 …… 先生與靜菴 …… 以堯舜君民爲 己任 知無不言 言無不盡 如講明小學書 以敦蒙養 刊行鄉約 以教民彝 罷昭格署 以正祀典 設賢良科 以顯俊乂 削濫勳 以杜幸門之類 是也.

그러나 충암 등의 이러한 일련의 도학 정치는 기묘사화라는 처참한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만다.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충암은 처음에는 고향에서 멀지 않은 금산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이듬 해인 1520년 정월에는 진도로 이배되고, 8월에는 제주에 도착하여 제주성 동문 밖 금강사터 여막에서 유배생활을 한다. 다음해 10월에는 끝내 自盡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니 그의 나이 겨우 36세였다. 충암은 臨絶辭 한 수를 남기고 그의 삶을 마쳤다.

### 3. 「海島錄」의 世界

충암은 기묘사화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정광필 등의 구명에 힘입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금산에 유배되었다가 진도로 이배되었다. 귀양길에서 그는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갔다가 亡命罪를 뒤집어쓰고 서울로 압송되어 곤욕을 치른 후 杖 100에 제주도로 귀양을 간다.

이때는 충암에게 있어 가장 절망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죽음을 면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그가 실현하고자 했던 지치의 꿈은 산산히 깨지고, 동지들은 갖은 곤욕을 치르고 이리 저리 유배된 것이다. 기묘사화 가해자들로부터 조광조, 朴詳 등과 함께 꼭 죽어야 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충암이 살아날 가능성을 가지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상을 실현해 보겠다는 꿈이 좌절된 마당에 더이상의 삶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충암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단지 멀리 혼자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이 그를 괴롭혔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 큰 바다를 건너 이 기이한 지역을 밟고 기이한 풍속을 보는 것도 세간의 기이하고 장한 일이다. 오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고 그 만두고자 해도 면할 수 없는 것은 명운에 정해진 것 같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sup>16)</sup>

16) 「풍토록」, 197면. 男兒落地 橫截巨溟 足踏此異區 見此異俗 亦世間奇壯事 蓋有欲來不得

절해고도 제주 유배를 세간의 기이하고 장한 일이라고 하면서 오고 싶다고  
올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을 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다는 말이다.

「해도록」은 충암의 이러한 고독과 체념 또는 달관 두 극을 詩化한 것이다.  
본고는 그의 이 정신적 궤적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미리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고독과 달관은 순차적이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 양  
끝을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것을 설명의 편의상 순차적으로 설  
명하는 것 뿐이다.

### 1) 孤獨하고 荒凉한 世界

귀양 초기에 충암은 의외로 담담한 모습을 보여준다.

宇宙從來遠	우주는 본래 아득하고
孤生本自浮	외로운 인생은 정처가 없는 것
扁舟從此去	조각배를 타고 떠나면서
回首政悠悠 <sup>17)</sup>	고개를 돌려보니 유유하구나

#### 渡碧波口號

이 시는 진도에 있는 벽파정에서 술에 진탕 취해서 지은 시다. 그러니까 귀  
양살이의 초기에 지은 시다. 따라서 충암이 깊이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처지에  
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의 화자는 의외로 담담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득한 우주가 유유하게 있으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은 정처없  
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로움은 단순히 관계 생활의 실패에 대응되는 감정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철학적이라 할 수 있는데 다분히 노장적인 느낌을 준다.<sup>18)</sup>

欲止不免者 似亦冥數前定 何足與言.

17)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해도록은 충암집 편찬 당시에 진도와 제주 귀양시의 시만을 권3에  
따로 모아놓은 것으로, 텍스트 163-167면에 실려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하 「해도  
록」 소개의 시는 제목만을 쓰기로 한다.

18) 그러나 현전하는 충암의 문집을 통독해 볼 때 노장적인 면을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다.  
다만 「해동야언」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어 그가 한 때나마 노장에 빠졌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그가 절망적인 처지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충암이 유배를 현실로 인식하는 것은 이별을 통해서다.

驛亭分袂日	역정에서 이별을 하고
溟海遠征時	아득한 바다를 건넌다.
此別情思在	헤어지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應將金石期	꼭 다시 만나야지

絕國孤生別	절도에 외롭게 떨어져 사니
溟波未有期	파도는 치는데 기약은 없다
贈君皎明月	밝은 달을 보면서
天末寄相思	하늘 끝에서 그리움을 부친다

驛亭別

죽을 곤욕을 치른 충암은 아득한 바다를 건너 귀양을 떠나면서 금방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한다. 이것은 그에게 귀양이 그리 큰 충격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쩌면 길지는 않지만 이미 귀양의 경험이 있었던 충암에게 있어서 이번의 귀양의 충격은 별로 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약속을 쉽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도에 홀로 살고 있는 그에게 있어 이별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귀양이 풀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파도는 치는데 기약없이 시간만 흐른다. 여기에서 그는 그 어찌할 수 없는 심정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본다. 이 달은 멀리 떨어진 그리운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 달을 매개로 충암은 그들과 교감을 나눈다.

이 시는 한시의 일반적인 형태 즉 앞에서 정경을 노래하고 뒤에서 시인의 심회를 읊조리는 것과는 달리 곧바로 자신의 심회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해도록」 전체에 걸쳐서 보이는 것으로, 앞에서 우주는 아득하고 인생은 정처가 없다고 하는 여유로움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충암이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는 절박감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당시의 충암에게 있어 주위의

沖庵學問 初雖陷於老莊 後來所見 實高人一等 其歸養辭職等疏 出於至誠 有此見識 而不得如其志 終陷大禍 豈不悲哉. 『海東野言』 3, 『국역대동야승』 2, 681면.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절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달을 쳐다보아도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은 없고 귀양살이는 더욱 괴로워진다.

海國殊風候	섬 지방은 기후가 달라
炎蒸困病夫	찌는 듯한 더위가 병든 사람을 괴롭히니
經冬瘴不歇	겨울이 되어도 장기가 안 그쳐
未夏毒先疝	여름도 되기 전에 아프기 시작하네
雲傘飛驚炎	구름이 흩어지면 더위에 놀라다가
H車軒急鳥	어느 새 해가 어두워진다
愁烟恒沸鬱	근심스런 안개가 항상 자욱하니
濁霧苦蒙糊	질은 안개로 시달리며
踟躕高天暮	바짝 옅드리니 하루가 간다
烘烘人地爐	대지는 타는 듯 하여
迷方不知往	길을 잃어 갈 바를 모르니
無處暫能逋	어디 도망칠 곳도 없다

.....

饜蚤侵宵永	탐욕스런 벼룩은 밤새 덤벼들고
飢蚊甚H晡	굶주린 모기는 해도 지기 전에 덤비네
衰懶癡如夢	쇠약하고 늘어져 꿈처럼 멍하니
支離倒復扶	폭 퍼져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네
无米眞恨魯	얼음이 없으니 진실로 노를 한탄하고
喘月更愁吳	달 짙음을 헐떡이니 오나라 소가 근심한다

苦熱奉簡仲野公求竹簾

무더위와 풍토병, 물것 등으로 고생하는 처지를 상당히 길게 서술하고 있다. 사실 충암은 귀양살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던 곳과 다른 기후·풍토로 고생을 많이 한 듯하다. 「풍토록」도 이 기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이 지역의 풍토는 독특다. .... 기후는 겨울에 따뜻하기도 하고 여름에 시원하기도 하여 변화무쌍하다. 바람은 따뜻한 것 같지만 사람에게에는 심히 날카로와 사람이 입고 먹는 것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병이 나기가 쉽다. 게다가 구름과 안개가 항상 자욱하여 개인 날이 적고, 눈먼 바람과 괴이한 비가 때도 없

이 일어난다. 찌는 듯이 덥고 축축하여 답답하다. 또 땅에는 벌레가 많은데 파리와 모기가 특히 심하다.<sup>19)</sup>

더위와 질병 벌레 등이 건디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앞의 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런 곳에서 귀양살이 하는 자신의 처지를 충암은 ‘서울을 떠나 오랑캐 땅에 던져지니 / 쇠잔한 몸이 이미 반쯤은 죽었네.’<sup>20)</sup>라고 그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유배객 충암을 괴롭힌 것은 불순한 일기와 풍토병보다도 외로움이 었다.

二年流落侶魚蝦 2년을 유락하며 물고기와 새우를 벗하니  
雙鬢蕭蕭半已華 귀밑머리 쓸쓸하게 반은 이미 세었네  
魂夢不知滄海遠 꿈에서 혼은 바다가 먼 것을 알지 못하고  
春來無夜不還家 봄내 매일 저녁 집으로 달려가네

晨起

충암이 제주도에 귀양왔을 때는 그의 나이 겨우 35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것은 단지 햇수에 불과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겨우 10개월만에 귀밑머리가 반이 세어버린 것이다. 물론 이것은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세등등하게 이상을 실현하려 했다가 죽음 바로 앞에서 겨우 살아난 충암의 극적인 轉落을 생각해 본다면 문맥에 나타난 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충암은 이러한 전략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집으로 매일 저녁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제주 귀양 당시에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음의 시는 이러한 심정을 보다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다.

19) 「풍토록」, 195면. 此邑風土 別是一區..... 氣候冬或溫夏或涼 變錯無恒 風氣似暄而着人甚尖利 人衣食難節 故易於生疾 加以雲霧恒陰翳少開霽 盲風怪雨發作無時 蒸濕沸鬱 又地多虫類 蠅蚊尤甚.

20) 〈거국〉 去國投蠻徼 殘骸半死生.

絶國無相問	멀리 떨어진 곳에는 찾아오는 이 없고
孤身棘室圍	외로운 몸은 가시울에 둘러넛네
夢如關塞近	꿈에서는 변경도 가까운 듯 하였는데
僮作弟兄依	아이 종을 형제처럼 의지하네
憂病工侵鬢	근심과 병은 귀밑까지 침범하고
風霜未授衣	바람 서리 몰아쳐도 옷도 주지 않네
思心若明月	그리운 마음은 밝은 달과 같으니
天末寄遙輝	하늘 가에서 먼 빛을 비추네

絶國

제주에 도착해서 지은 이 시에서 충암은 자신의 처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절해의 고도에 위리안치 당한 충암은 주위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에 빠진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대사헌이나 형조판서 등의 요직에 올라서 요순의 이상적인 정치를 펴보겠다는 일념으로 공신들의 위훈 삭제, 향약의 실시, 현량과 설치 등을 서슬 퍼렇게 주장하던 처지에서 찬바람이 불어와도 몸을 가릴 옷조차 구하지 못하는 간고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극적인 추락은 꿈과 현실의 대조로 나타난다. 꿈속에서 그는 보고 싶은 사람들 곁으로 금방 간다. 적어도 꿈속에서는 그리운 사람들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꿈을 깬 때는 단지 아이 종을 형제처럼 의지하고 살 수 밖에 없는 사고무친의 처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다. 따라서 꿈에서는 변경도 가까운 것처럼 느낀다고 하는 것은 꿈을 깬 때의 외로움을 확대시켜줄 뿐이다. 그리고 이런 처지에 대하여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근심으로 머리가 썩 뿐이다.

漢羅山北月	한라산 북쪽에 달이 뜨니
溟海古今愁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근심스럽구나
人共浮雲遠	사람은 뜬 구름처럼 멀리 있고
潮通若水流	조수는 弱水까지 흐른다
寒烟迷橘園	차가운 안개는 귤원을 가리고

白露掩蘭丘	맑은 이슬은 난구를 덮었네
歇盡年芳暮	젊은 나이가 저물어 가니
王孫何淹留	왕손은 어디에 머무는고

獨立

충암이 홀로 있으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구름처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과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약수가 가로막고 있다. 한라산 북쪽에 달이 떠오르면 어둠이 걷히는데, 그러나 어둠이 걷히고 보이는 것은 바다 건너에 있는 그리운 얼굴들이 아니다. 그들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바다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심연이다. 우리는 앞에서 충암이 달을 통하여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심정적인 유대감을 느끼는 시를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오히려 달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확인시켜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반대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시인은 왕손은 어디에 머물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 왕손은 시인 자신이다. 그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모를 만큼 깊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충암은 이러한 처지에서 무척이나 고향을 그리워한다.

回首送君處	고개 돌려 그대 보낸 곳 바라보니
蒼茫海日昏	아득한 바다에 해가 기운다
家山應見過	가는 길에 그대 고향을 지나겠지
花落掩柴門	꽃이 지니 싸릿문을 닫아야겠네

贈別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사람과 헤어지면서 쓴 이 시에서 충암은 고향을 생각한다. 그는 가는 길에 틀림없이 고향을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갈 수 없는 몸, 차라리 싸릿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생각해본다면 그곳도 여기처럼 꽃이 피고 지는 곳이다. 그러나 도저히 갈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닫힌 문 안은 고향을 그리는 그의 마음을 달래주는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은 그리움을 촉발시키는 모든 것을 보지 않겠다는 절망적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폐쇄된 공간에서 사향심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그가 이처럼 그리워하는 고향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그리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天畔離懷切	하늘 가에서 나그네 정회가 절절하니
分携葉脫初	처음 떨어진 낙엽을 나누어 갖는다
汝歸應拜母	너는 돌아가 어머니를 뵈겠지
兄住尙思吾	형님은 여기 남아 저를 생각하겠지요
骨肉空幽夢	골육이 헛되이 꿈에서나 만나니
親知各塞隅	친지가 각자 구석지에 흩어졌네
海山瞻皎月	바닷가 산에서 밝은 달을 바라보니
風雨愼征途	비바람 치는데 갈 길을 조심해라

贈弟別

동생과 이별하면서 開 八月 九日 쓴 이 시는 먼 귀양지까지 자신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동생과 이별하면서 형제간의 절절한 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윤 8월이니까 계절은 깊은 가을이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는 돌아가 어머니를 뵈겠구나.’ 하면서 길을 떠나는 동생에게 부러움이 담긴 이별의 말을 한다. 충암은 이 시에서 특이하게 멀리 떠나며 하는 동생의 말까지도 시에 담고 있다. ‘형님은 여기 남아 저를 생각하겠지요.’ 이것은 시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즉 사람이 가도 그의 말은 바로 옆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골육과 친지는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꿈에서나 그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가까이 있는 동생이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멀리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를 붙잡지 못한다. 이 안타까움을 그는 달이 비추고 있어서 어둡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바람이 치는 길을 조심히 가라고 당부의 말로 표현한다. 이 당부 속에는 충암의 외로움과 형제의 정이 깊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酒醒時想君	술이 깰 때 그는 그대를 생각하니
森然入我目	삼삼하게 내 눈에 있네

何知百年意	인생 백년의 의미를 어떻게 알리요
遽作炊黍熟	그저 허둥지둥 조나 익히는 것을
.....	
豈無壺樽會	어찌 술이 없겠는가
要非心所屬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	
君今爲異物	그대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되었으니
何地開心曲	어디에다 마음을 펴볼까
耽羅有斯人	탐라에 이 사람이 있어서
嗚呼云不淑	오호라 맑다고 하지 않으랴
.....	
來日未能卜	앞날은 알 수 없으니
縱有泉下期	비록 저승에서 만나자 했어도
冥茫恐難覩	아득하여 만나보기 어려운 일
寢寐尙云可	자나깨나 좋다고 하지만
空軒耐幽獨	빈 난간에서 외로움을 견디네
.....	

悼文士豪

외롭고 황량한 제주에서 충암은 문사호를 사귀다. 그는 본명이 世傑인데, 불행히도 그는 34세의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충암에게 있어 커다란 슬픔이었다. 충암은 몹시 슬퍼하면서 이 긴 시를 써서 그의 죽음을 애도한 것이다.<sup>21)</sup>

文士豪는 도깨비들만 득시글거리는 탐라에서 충암이 마음을 붙인 많지 않은 사람 중의 하나였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덧없는 것, 그저 조밥 익히는 시간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다. 이처럼 덧없는 인생에서 그것도 귀양지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렵게 만난 문사호가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것이다. 이제는 저승에서

21) 시 제목 아래에다 '士豪名世傑 耽羅之傑也 年三十四沒 吾之寄哀 情見乎詩'라고 밝혀놓고 있다.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여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저 아무도 없는 빈 난간에  
서 외로움을 견디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문사호까지 없어진 황량한 세상에서 충암은 세상은 이매가 득시글거리는  
것을 본다.

炎州沒鯨浪	무더운 땅에 물결도 없고
瘴雲蒸曉昏	먹구름만 새벽부터 피어 오른다
餘生伴魍魎	남은 삶 도깨비를 벗해야 하니
遠客任乾坤	먼 나그네 건곤에 몸을 맡기네

和李德優

그가 사는 세상은 물결조차 일어나지 않는 답답한 세상이다. 그곳에서 남은  
삶을 도깨비를 벗해야 한다. 꼼짝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천지에 몸을 맡길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충암은 이처럼 덥고 장기가 가  
득한 구름만 가득한 세상에만 도깨비를 보는 것은 아니다.

秋陰起將暝	가을 그늘 일어 어두어지려 하는데
迢遞倚荆扉	먼 데를 바라보며 사립에 기대었네
虛莽變魍魎	텅 빈 벌판에는 도깨비 근심스럽고
冥烟島嶼微	어두운 연기에 섬들이 희미하다
眼穿孤鳥盡	눈길은 외로운 새들을 보아 다하고
思逐片雲依	마음은 조각 구름을 좇아 의지하네
一葦豈云遠	자그만 배 하나면 어찌 멀다 할까마는
人遐自未歸	그리운 사람은 멀리 있어 가지 못하누나

晚望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풍경은 객관적으로 보면 대단히 평온하다고 할  
수 있다. 가을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싸릿문에 기대어 있는 시인의 시야에 들  
어오는 것은 멀리는 저녁 연기가 희미하게 깔려 있고, 몇 마리의 새들이 한가  
롭게 날고 있는 텅 비어 있는 벌판 풍경이다. 그러나 시인은 그와 같은 풍경  
에서 결코 편안함이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 텅 빈 벌판에는 도깨비들이  
근심스러운 것이다.

애써 도깨비를 피하여 눈길이 멎는 곳은 먼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이며, 마음은 바람 따라 흐르는 조각 구름에 가 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자그마한 배만 있어도 가능할 것 같은 곳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 뿐 실재로는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2) 未完의 達觀

충암은 유배지에서 깊은 자책감을 느낀다.

乖時悲學道	시속과 맞지 않으니 도를 배운 것이 슬프고
身辱魂移忠	몸이 욕을 당하니 혼은 충성을 못하는구나
宿草荒丘壟	황량한 언덕에는 묵은 풀이 우거지고
時羞闕尊供	제절 음식도 올리지 못하는구나
憂喜精先感	근심과 기쁨은 혼이 먼저 느끼니
幽明氣本通	유명은 달라도 기는 통하나 보다
劇情翻易覺	감정이 피어 올라 그만 잠을 깨어 보니
餘淚悒幽竹	가슴 속 깊은 근심에 눈물이 넘치누나

夢先

꿈에 先祖를 만나고 쓴 이 시에서 충암은 군주에게는 충도 이루지 못했고, 조상에게는 제사조차 때 맞추어 지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깊이 자책한다. 그는 그가 배운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는 충과 효를 모두 이루지 못한 것이다. '도를 배운 것이 슬프'다는 말은 가슴 아픈 탄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탄식은 혈기방장한 30대 초반에 지치를 실현하고자 일로매진했던 그의 행적을 생각해본다면 그의 좌절감이 얼마나 깊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 '시속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가 배운 유학이 기본적으로 배운 것을 세간에서 실현하려는 것임을 생각할 때 시속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자신의 학문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깊은 좌절에 허우적거리던 충암에게 꿈에서나마 조상의 혼이 나타

난 것은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아닐 수 없었다. 충암은 그래서 몹시 감격하여 그것이 선조와 후손 사이에 氣가 통하기 때문일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충은 이미 실패했지만 효만은 아직까지도 절망적인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암은 감정이 북받쳐 잠을 깨어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으로부터 충암은 귀양의 좌절감을 벗어나는 단서를 찾기 시작한다.

溟浪千重隔	바다에는 물결 일어 천리가 막혔으니
蓬山一夢傳	봉래산에서 한 꿈을 전한다
思君不可見	그대를 그리워 해도 만나지 못하니
知我者其天	나를 아는 자는 하늘 뿐이로다

夢

그는 여전히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로 둘러싸인 귀양지에서 멀리 있는 그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는 좌절감에서 벗어나 하늘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말을 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시속에 맞지 않으니 도를 배운 것이 슬프'다는 말과는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海國恒陰翳	섬나라는 언제나 구름에 덮여 있고
荒村盡日風	거친 마을은 온 종일 바람
知春花自發	꽃들은 봄을 알아 저절로 피고
入夜月臨空	밤이 되면 하늘에는 달이 뜬다
鄉思千山外	천리 밖에서 고향을 그리나니
殘生絕島中	쇠잔한 목숨은 외로운 섬에 있다
蒼天應有定	운수는 하늘이 정해 놓았으니
何用哭途窮	길이 궁하다고 울어 무엇 하리

遺懷

주위의 풍경은 앞에서 살펴본 시들과 다를 바 없다. 언제나 구름이 덮혀 있고 종일 바람만 분다. 그러나 이 음울하고 바람만 부는 황량한 곳도 자연의 순환은 다를 바 없어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밤이 되면 달이 뜬다. 단지 멀리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는 크게 마음

에 상처를 주지 못한다. 운수는 하늘이 정해놓은 것이니 삶이 궁하다고 해서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남자가 커다란 바다를 건너 이런 이상한 지역에 와서 이런 이상한 풍속을 보는 것도 또한 세상에서 기이하고 장쾌한 일이다. 대개 오려고 해도 할 수 없고 그만두려고 해도 면할 수 없으니 운명이 미리 정해진 듯 하다. 어찌 다시 말할 것인가.'<sup>22)</sup> 하는 말은 바로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깨달음을 통하여 그의 의식이 바뀐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少年師古訓	어려서 옛 가르침을 배웠으면서도
意拙謾多癡	못나고 게을러 어리석은 짓만 많았다
道在名何用	도가 있으니 명예는 무엇 하리
官成殆亦隨	벼슬을 하면 위험이 따르는데
世事應前定	세상의 일이란 다 정해져 있는 것을
行身未早知	그것도 모르고 살았으니 ……
餘生倘有悔	남은 삶 지난 잘못을 뉘우치면
來H庶能追	앞으로는 허물이 없으렸다.

又

앞의 <견회>에 뒤이어 <又>라고 이름한 이 시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은 충암은 자신의 지난 날의 행적을 돌이켜 보는데, 여기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어리석은 짓만 많았다고 요약한다. 명성이 높아지면 위험이 따른다. 이것은 그가 현재 몸으로 겪고 있다. 인위적인 노력이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세상의 일이란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온 삶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난 삶 동안의 과오를 잘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충암이 귀양의 좌절감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찾은 충암은 귀양지에서이지만 나름대로 현실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한다. 우선 그는 위리안치를 당했다고 하지만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바깥 출

22) 주 16) 재인용.

입을 하면서 목사의 청을 받아 기우제문을 짓기도 하고<sup>23)</sup> 여전히 백성의 교화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는다. 이러한 여유는 바로 '나를 아는 자는 하늘'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충암이 백성을 교화하는데 있어서 유학 절대주의적인 태도를 탈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불교가 자비를 주로 하고 살생을 금하며 각자 지은 업에 따라 죄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등 백성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불교가 가장 근사하다고 한다. 그리고 유자로서 공자의 도가 드날리게 하지 않고 허탄한 異教를 돕고 있으니 도를 믿는 것이 독실하지 않으며 장차 인심을 잘못되게 하는 잘못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추궁<sup>24)</sup>에도 다음과 같이 백성을 교화하는데 불교가 유효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백성들이 아는 것은 이해득실이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복과 화다. 그들은 단지利的 이로움만을 알지 인의가 이로움을 알지 못한다. 또 그들이 눈을 부릅떠 보고 힘써 노력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기를 바라는 것 뿐이며, 사물에 병이 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인의를 말해준다고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는가. 귀를 잡고 가르쳐 주어도 귀로 들을 뿐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를 않아 우매할 뿐이다. 그러나 죄와 복이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두려워서 마음이 움직여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그보다 떨어지는 사람들도 죄와 복을 겁내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없애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sup>25)</sup>

이러한 태도는 소격서를 폐지하기 위하여 어전에서 밤을 세우며 간쟁하던 것을 생각해보면 異教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23) 권4의 「漢擊山祈雨祭文」 다음에 '此下 謫中爲牧使李侯作'이라고 밝혀놓고 「長兀岳祈雨文」, 「祭龍文」, 「祭淵文」, 「重祭山文」, 「重祭龍文」 등을 실고 있다.

24) 194면, 「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

25) 「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 194면. 彼民俗之所喻者 利害也 得喪也 所喜而惡者 福與禍也 彼但知利之利 不知仁義之利 利 彼且恣睢奮效 唯斲利乎己 而不可顯夫病乎物 如是焉而驟而告夫仁義 彼寧知仁義爲何物 提耳而惇誨之 耳受腹扞 慳慳然矣 然而罪福迫己之言 猶或有時 然然動乎中 而聽嚮焉 其下者猶怯乎罪福 而不敢肆焉 由是而漸之乎善 而除乎惡 其不愈也耶.

유학적인 이미지와 다른 가르침의 이미지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면 ‘표표한 이 몸은 어디로 가나 / 청제로나 들어가리라’<sup>26)</sup>에서는 선가적인 이미지가 등장하는가 하면 <積水>에서는 ‘때를 타고 성인의 탄식을 생각하니 / 오랑캐 땅도 더럽지가 않구나.’<sup>27)</sup>에서는 전형적인 유학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어떻든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고 난 뒤 그의 시는 놀랄만큼 평화스러운 면을 보여준다.

迢迢雲影小窓陰 아득한 구름 작은 창에 그늘이 지는데  
虛室無人伴獨斟 빈집에서 혼자 잔을 기울인다  
唯有隔林禽鳥樂 숲속에서는 새소리만 들리니  
提壺終日弄春音 온종일 술병 끼고 봄을 즐기네

寓興

微風和雨政廉纖 부드러운 바람에 비는 발처럼 가늘고  
烟景芳華入望添 안개 속에 꽃이 눈에 들어오네  
誰送天涯春色遍 이 하늘 끝까지 누가 봄을 보냈고  
滿城花架撲青帘 꽃 솜이 성에 가득하니 술집을 찾는다

微風和雨

이들 시에서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는 달리 매우 밝고 화사한 풍경들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황량하고 거칠게 보였던 자연은 이제 새소리가 들리고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꽃들이 장식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다. 또한 그 속에서 시인은 지금까지 충과 효를 이루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골육과 친지를 그리워하던 데에서 벗어나 온종일 술집을 찾아다니면서 술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봄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변방에 봄이 가도 아까워하는 사람 없으니 / 시짓는 늙은이 혼자서 느낌이 많다’<sup>28)</sup>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에 오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좌절감을 완전히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謫居人事絕 귀양살이에 인사가 끊어지니

26) <赴耽羅適所 行次仙巖驛 驛柱有昌世詩 設次韻>, 飄飄定何往 恐 是入青齊.

27) <積水>, 乘桴潛聖歎 從不陋蠻居.

28) <多字>, 邊城春盡無人惜 唯有詩翁情緒多.

却與懶相宜	게으름이 오히려 잘 어울린다
書亂多無次	책은 어지러워 차례가 없고
晝荒半不治	밭도 거친데 반도 메지 못했다
睡眠侵午足	한낮이 될 때까지 잠을 자고
枕席趁涼移	베개 자리는 서늘한 곳 따라 옮긴다
人散酒醒後	사람들 흩어지고 술이 깨면
月明閑夜時	달은 밝고 밤은 조용한 때

懶

劉白張의 姚體를 본받아 썼다고 밝히고 있는 이 시에서 시인은 귀양살이의 좌절에서 벗어나 한가함을 즐기는 데까지 이른다. 책도 두서없이 펼쳐져 있고, 밭도 반 넘어 메지 못하여 풀이 무성하다.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데, 손님이 다 가고 나면 밤이 깊은 시간이다. 하루 보내는 것이 바쁘지 않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한가함의 한 극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꼭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이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까지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총암의 「해도록」에는 비장어린 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절해 고도에 위리안치를 당한 시인의 시에서 게으름이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면서 비장한 면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이한 감을 준다.

끌육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친지들은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옛날 함께 놀던 사람들 중에는 벌써 죽은 사람들도 많으니, 하늘 가에 있는 외로운 신하가 세상의 번고를 얼마나 맛보았는가. 평소의 마음 먹기로는 기쁜 마음으로 이치에 따르려고 하지만 홀연히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또한 처량한 감회가 없지 않다.<sup>29)</sup>

그가 솔직히 고백하고 있듯이 평소에는 기쁜 마음으로 (자연의) 이치에 따르려고 하지만 친지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옛날 함께 일을 해보고자 했다가

29) 「풍토록」, 199면. 骨肉隔絕 親知悠緬 昔時遊從 凋喪已多 天外孤臣 幾嘗世故 尋常處心 固未嘗不怡然順理 而忽然念到 亦未嘗不悵然以感也.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처량한 감회에 젖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도 달관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는 그는 너무 감정이 너무 풍부했다.

十里煙村細雨過 안개 낀 마을에 가는 비 지나가니  
平郊芳草綠如羅 마을 밖 들판에 푸른 풀 비단갈네  
邊城春盡無人惜 변방 고을에 봄이 다 가도 아까워하는 사람 없고  
唯有詩翁情緒多 그저 시쓰는 늙은이 혼자 느낌이 많다.

多字

비 온 뒤 들판에 풀이 돌아나자 비단같다고 하는 말하는 것은 항상 황량하고 거칠다고 말하던 것과 비교해보면 커다란 변화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혼자 변방 생활을 하면서 느낌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달관의 경지에 이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의 제목 「多字」는 그만큼 할 말이 많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 많은 말들은 주로 세월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거칠고 황량한 자연 속에 외로이 살아가는 유배객의 노래로 상태로 되돌아가고 만다. 예시한 편을 든다.

蕭蕭山雨下茅庵 산비가 쓸쓸하게 띠집에 내리니  
秋老荒城晚色감 거친 성에는 가을 빛 질었구나  
故國山川魂自往 옛 살던 산천은 혼백이 찾아가니  
不知身在海天南 바다 건너 남쪽에 있는 것을 잊고 사노라

山雨

산비가 쓸쓸하게 내리고 가을이 깊은 거친 성은 앞에서 많이 보아왔던 충암 시의 한 풍경이다. 그리고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는 혼백은 항상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옛날 살던 산천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칠고 황량하여 적응하지 못하는 자연 속에서 살면서도 그러한 현실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 속으로 끊임없이 옛날 살던 산천을 찾아가고 그곳에 있는 친지를 그리워하였던 충암은 어쩌면 자신의 귀양살이가 죽음으

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비장한 심정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가지 흥미있는 것은 그의 시에 아주 난삽한 벽자와 거대 이미지가 보인다는 것이다.

瀛洲東頭繁扑頓	영주 동쪽 끝에 큰 자라가 자리하여
千年閻影涵重溟	숨은 그림자가 천년을 바다 속에 잠겼더니
群仙上訴攝五精	신선들이 하늘에 빌어 오정을 잡아
霹靂一夜轟雷霆	우뢰 소리 요란하게 하룻밤 힘을 써
雲開霧廓忽湧出	구름 개고 안개 걷히자 홀연히 솟았으니
瑞山新畫飛江庭	서산의 새 그림이 왕정으로 날라갔네
溟濤崩洶噬山腹	파도가 날뛰어 산허리를 헐어내니
豁豁洞天深雲局	텅빈 골짜기에는 구름만 깊고
稜層鑲壁金櫛駁	능층과 누벽에 비단 무늬 아롱져
扶桑日照光晶燄	부상에 해 뜨니 더욱 밝네
繁珠凝露漉輕濕	구슬같은 이슬 물방울로 맺히니
壺中瑤碧躡列星	선계의 구슬이 별처럼 박혔네
瓊宮淵底不可見	경궁 못 아래는 볼 수가 없으나
有時隱隱窺窓櫺	때때로 은은히 창틈으로 엿보니
軒轅奏樂馮夷舞	현원씨는 풍악하고 해신은 춤을 추고
玉簫竽竊來青冥	옥소 소리 은은하여 하늘에서 들리는 듯
宛虹飲海垂長尾	무지개는 바닷물을 마시느라 긴 꼬리를 드리고
羸鵬戲鶴飄翅翎	대붕은 학을 놀려 날개짓을 하네
曉珠明定塵區黑	새별은 밝아도 천지가 어둡더니
燭龍爛燁雙眼青	촉룡의 두 눈 푸르러 세상을 밝히네
駱虯踏躡多娉婷	올망졸망 작은 고기 아름답게 노닐고
天吳九首行玲琳	아홉 머리 해신이 꿈틀꿈틀 움직이네
幽沈水府囚百靈	깊은 수부에는 온갖 혼령 갇혀 있으니
邪鱗頑甲毒風腥	못된 고기들 독을 풍겨 비린내가 풍기고
太陰之窟玄機停	그늘진 굴에는 현기가 머물렀네
仇池禹穴傳神蹟	구지와 우혈은 신적을 전하는데

惜許絕境訛圖經      뛰어난 경치는 그림으로 못 그리네  
 蘭橈擊入攪神形      난노를 저어가 귀신을 붙잡으니  
 鐵笛吹裂老怪聽      철적을 부는 소리 늙은 괴물이 듣는다  
 水咽雲冥悄愁人      물은 울고 구름은 어두워 사람들 근심스러워 하니  
 歸來恍兮夢未醒      돌아와서도 황홀하여 아직도 꿈인 듯 하다  
 嗟我只道隔門限      아! 나는 다만 길이 막혀 문밖을 못 나가니  
 安得列叟乘風冷      어떻게 열자처럼 찬 바람을 탈까

聞方生談牛島歌以寄興

쉽게 볼 수 없는 난잡한 글자가 많이 나오고 화려하고 괴기하면서도 거대한 이미지들이 뒤엉켜 통일적인 인상이 분명하게 잡히지 않는 이 시는 엄습하는 절망감에 대항하여 도달한 충암 나림의 한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기묘사화가 발생하였을 때 충암은 이미 죽임을 당할 주요 인물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정광필 등의 구원에 힘입어 죽음을 면하고 유배길에 올랐던 충암은 끝내 해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귀양온지 겨우 10개월만에 절도에서 사사되고 만다. 그리고 이 때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한편의 비장한 시를 남긴다.

投絕國兮作孤魂      몸을 절도에 던져 외로운 넋이 되어  
 遺慈母兮隔天倫      어머니를 두고 가매 천륜도 막혔도다  
 遭斯世兮殞余身      이 세상 만나 이 목숨 끊어지니  
 乘雲氣兮歷帝昏      구름을 타고 상제의 문을 지나서  
 從屈原兮高道遙      굴원을 따라서 함께 놀리라  
 長夜冥兮何時朝      기나긴 밤이여 언제나 새려나  
 桐丹衷兮埋草萊      빛나는 붉은 정성이 풀 속에 묻혔도다  
 堂堂壯志兮中道衰      당당한 장한 뜻이여 중도에 꺾였으니  
 嗚呼千秋萬歲兮應我哀<sup>30)</sup>      아 천추만세에 나는 슬퍼하리라

그는 깊이 절망하였다. 그러나 이 절망은 개인적이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당당한 장부의 뜻이 중도에서 꺾이는 현실에

30) 「臨絕辭」, 178면.

절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빛나는 붉은 정성이 풀속에 묻혔'다고 탄식하면서 천추 만세에 슬퍼하는 것이다. 이런 기나긴 밤 같은 현실은 언제 쉰 것인가. 일찌기 현실을 외면하지도, 상제를 찾거나 굴원을 따라서 노는 것도 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했던 충암은 당당한 장부의 뜻을 중도에 꺾고 삶을 마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배지에서 비장감이 보이지 않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는 '당당한 장한 뜻이여 중도에 꺾였으니 / 아 천추만세에 나는 슬퍼하리라.'고 비장하게 탄식하고 그의 삶을 마친 것이다.

## 4. 結 論

충암 김정은 사림 출신으로 관계에 등장하면서부터 지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그의 삶을 마친 인물이다. 그는 폐비 신씨의 복위를 주장하여 훈구 공신 세력과의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로 기묘사화 때 진도, 제주에 유배되어 삶을 쳤는데 「해도록」은 이때의 시를 모아놓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상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다 좌절된 충암이 귀양지에서 어떠한 의식의 흐름의 궤적을 추적해본 것이다.

기묘사화가 발생하자 충암은 진도로 귀양을 갔다가 바로 제주로 이배되었다. 유배길 해남 바닷가에서 그는 길가에 서있는 늙은 소나무에다 위의 시 세수를 썼는데<sup>31)</sup> 이 세수의 시에서 충암은 그의 좌절과 외로움 신념과 달관을 잘 압축해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해도록」은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본 논문의 결론으로 삼기로 한다.

枝條摧落葉鬱사 가지는 부러지고 잎새는 형클어지고  
斤斧餘身欲臥沙 도끼에 시달린 몸이 모래밭에 쓰러지려네  
望斷棟梁人世用 기둥으로 쓰이기는 이미 끝났으니

31) 「국역대동야승」 권2, 681면. 金提學淨 坐黨禍 杖流濟州 至海南之海涯 憩道傍老松下 吟成三絕.

查牙堪作海仙槎    뗏목을 만들어 신선이나 찾아갈까  
 海風吹去悲聲遠    바닷바람 지나가니 슬픈 소리가 멀고  
 山月高來瘦影疎    산 달이 높이 뜨니 야윈 그림자 성글구나  
 賴有直根泉下到    곧은 뿌리 황천에까지 닿아  
 雪霜標格未全除    눈 내리고 서리 쳐도 격조를 잃지 않네  
  
 欲庇炎程暍死民    더위먹은 사람들 쉬어가라고  
 遠辭巖壑屈長身    깊은 산 하직하고 길가에 몸을 굽혔네  
 斤斧日尋商火煮    나뭇꾼 매일 찾아오고 가을 불벌 뜨거우니  
 知公如政亦無人    진시황만큼 그대 알아주는 이도 없으리라

세 수로 되어 있는 이 시는 첫째 수에서 충암은 현재의 자신의 처지를 처절하게 말하고 있다. '가지는 부러지고 잎새는 형클어지고 / 도끼에 시달린 몸이 모래밭에 쓰러지려' 한다는 말은 고문과 좌절감으로 쓰러지려 하는 자신의 처지를 과장없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러지려는 몸으로 이제는 기둥으로 쓰기는 이미 틀렸다는 뼈저린 현실 인식을 하고 충암은 신선이나 찾아볼까 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신선을 찾으려는 초월행이 아니다. 기둥이 되기를 기약했던 그가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위를 돌아보는 두리번거림에 지나지 않는다.

두번째 시에서는 그러나 그는 결코 신선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는 그가 박고 있는 뿌리가 너무 깊었던 것이다. 그러나 깊은 비애와 외로움이 업습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바람 소리에서 슬픔을 듣고 소나무와 달이 어우러진 어찌면 단아하고 고고한 풍경에서도 야위고 성긴 모습을 찾아내고 있다.

마지막에서 충암은 소나무를 의인화시켜 자신의 심회를 표현하고 있다. 즉 그는 자신이 도끼에 시달려 모래밭에 쓰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위먹은 사람들이 쉬어가라고 깊은 산을 떠나서 일부러 길가에 그늘을 드리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는다. 여전히 나뭇꾼들이 도끼를 들고 찾아오고 가을이 되어도 더위는 가시지 않는다. 이런 냉혹하고 무시무시한 현

실에서 그는 자신을 알아줄 사람을 찾는다. 과연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가. 불행하게도 충암에게는 그런 사람이 끝내 없었으며 결국 모래밭에 몸을 누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